

폭염 무색한 관람객 러시

폐막 2주앞 여수세계박람회 어제 하루 22만명 입장 박준영 지사 “사후활용·부채 정부가 우선 책임져야”

여수세계박람회가 하루 관람객 수 2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박람회 조직위는 폐막 14일을 앞두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조직위는 29일 “박람회 개장 77일

만인 지난 27일 총 관람객 수 500만명을 돌파했고, 28일 15만5304명이 온 데 이어 29일에도 21만9562명(29일 오후 6시 현재)이 방문하는 등 막판 관람객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7만명 안팎에 머물던 관람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성인 기준 3만 3000원이던 입장료가 ‘지자체의 날’

확대 등으로 3000원으로 대폭 싸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날은 특정 지자체를 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일선 지자체를 시작으로 경남, 충북, 수도권 등지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관람객이 폭주하고 있다. 또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가족 단

위 관람객이 대폭 늘어난 것도 관람객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가 최종 목표로 내세운 관람객 70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은 14일 동안 하루 평균 13만명 이상이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직위는 오는 31일까지를 ‘여수시민 감사의 날’로 정해 30만여 수시민 모두를 박람회장으로 무료 초청하는 등 관람객 수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의 캐

릭터들과 함께 수상안전 뮤지컬 ‘신나는 바다놀이터’를 공연한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29일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 “박람회 부지 매입에 관심을 갖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시간을 두고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직위원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사후활용은 국가가 우선 책임지면서 점차 민간자본에 넘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개막 전 조직위가 정부로부터 빌린 4800여억원도 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박람회 유지를 통해 개발하려 했던 해양 산업들이 꾸준히 유지되길 희망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워 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태기자 mtlim@



“금메달이 두개” 지난 28일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진종오가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진종오는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해 금, 은, 2개를 획득했다. /연합뉴스

‘실격소동’ 박태환 아쉬운 銀

진종오, 10m 공기권총 한국 첫 금



한국 사격의 대들보 진종오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첫 금을 명증시켰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실격 소동 끝에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종오의 실격에 도전했던 양궁 대표팀의 목표는 불발됐다. <관련기사 14·15면> 진종오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그리니치파크의 왕립 포병대 기지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00.2점을 쏘며 본선 점수(588점) 합계 688.2점으로 한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08 베이징 올림픽 50m 권총 우승자인 진종오는 한국 사격 선수 최초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에 성공했다. 박태환의 수영 남자 400m자유형 올림픽 2연패 꿈은 무산됐지만 ‘실격소동’ 속에서 값진 은메달이 나왔다.

박태환은 예선에서 3분46초68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3조 1위, 전체 4위에 올랐지만 출발 신호 전에 몸을 움직였다는 애매한 이유로 실격처리됐다. 이에 한국선수단이 이의신청을 했고 국제수영연맹(FINA)이 판정을 번복하면서 결승무대를 밟았다. 박태환은 결승에서 초반 1위로 페이스를 펼쳤지만 막판 스피드에서 뒤져 중국 선수(3분40초14)에 이어 3분42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

었다. 김법민, 임동현, 오진혁으로 구성된 남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미국에 219-224로 패하며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 달성에 실패했다. 전종목 석권을 노렸던 양궁 대표팀의 목표도 불발됐지만 3·4위전에서 멕시코를 224-219로 꺾고 한국에 첫 동메달을 안겨줬다. 대회 첫날 최대 5개의 금메달을 노렸던 한국은 금·은·동 1개씩을 수확하는데 만족하며 브라질과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민주 대선경선 오늘 5명 압축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인학부 학부 062)605-1114
인학원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민주통합당은 30일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하는 5명의 후보를 확정하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실시했으며, 29·30일 이틀간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며, 조사표들은 각

각 2400명으로 담은 두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 합산해 30일 밤 11시경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후보 8명 중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삼인공모단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4명은 예비경선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박준영 전남지사, 김경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환·조경태 의원 등 4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 즉각 중단하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중단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측면에서 기업이미지 개선에 도움 줄 것

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절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M&A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인수합병)은 기업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애드윈플러스라는 유명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첫째,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윈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명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그리고 애드윈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아

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설립했지만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유명회사인 애드윈플러스가 사조그룹의 지원(저리 대출)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애드윈플러스가 55.2%의 채권을, 사조대림·사조바이오피드·사조인티그레이션 등 사조그룹 계열사를 이용하여 18.3% 채권을 취득해 총 73.5%의 담보채권을 매입했다. (2012년 7월 현재기준, 66.6% 보유)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조그룹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셋째,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하여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 가지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내다 돌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회생인가에 반대하고 채권자 권의 보호를 위해 신속히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사조그룹의 행태는 거의 사기행위에 가깝기까지 하다.

경실련과 많은 시민들은 위처럼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탈취하고자 기업회생인가를 방해하는 사조그룹의 부도덕함과 재벌대기업의 탐욕스러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M&A 과정에서의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줄이는 행위도 문제이지

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을 빼앗는 부도덕함에 있다.

사조그룹은 2004년 해표, 2006년 대림수산, 2007년 오양수산, 2010년 남부함과 용가네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성장해온 대기업이다. 대기업으로써 적법한 M&A를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는 사조그룹의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조그룹은 즉각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중단하고, 초기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동의했던 것을 상기하여 회생인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사조그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인가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생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두 기업에게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향후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끝.

2012. 7.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